

온라인몰 급증

코로나 이후

주점·PC방 급감

국세통계, 2월 광주 100대 생활업종 분석

광주지역 창업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쇼핑 문화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통신판매 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던 간이주점과 PC방 등은 급감한 반면, 코로나 엔데믹에 헬스클럽과 피부관리소 등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집계한 광주지역 100대 생활업종 중 사업자는 8만26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8881명)보다 4.7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1만1603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2020년 8003명에서 지난해 9611명으로

통신판매사업자 폭발적 증가... 1만1603명으로 20.73% ↑ '위라벨 중시' 헬스장·피부관리소 늘고 독서실·예식장 감소

20.09% 증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전년 대비 20.73%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00대 생활업종별로는 지난해까지 한식전문점 사업자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부터 통신판매업이 1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창업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다.

2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던 업종은 실내스크린골프프점이었다. 올해 실내스크린골프점 사업자는 197명으로, 전년(9611명)보다 18.67% 늘었다. 2년 전(134명)보다는 무려 47.01% 급증한 것이다.

이어 기술사(44명, 15.79% ↑), 헬스클럽

10.81% 증가했다.

이와 달리 1년 새 가장 많은 사업자수 감소를 기록한 것은 독서실이었다. 광주지역 독서실 사업자는 지난해 2월 395명에서 올해 320명으로 18.99% 급감했는데, 최근 스타디카페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전통적인 형태의 독서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PC방도 사업자가 393명에서 345명으로 12.21% 줄었다. 또 코로나로 '2차 문화'가 자취를 감추면서 간이주점도 148명에서 131명으로 11.49% 감소했다. 2년 전(161명)보다는 18.63% 줄어든 것이다.

호프전문점 역시 지난해 1818명에서 올해 1778명으로 2.2% 감소하는 등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1964명)에 비해서는 9.47%나 감소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확산 당시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던 예상장도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감소 등이 맞물려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18명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소가게(285명→315명, 10.53% ↑)와 정육점(576명→631명, 9.55% ↑), 과일가게(332명→353명, 6.33% ↑) 등 이른바 '동네가게'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창업비용이 저렴하고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 '서민형 창업'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불황의 여파로도 해석된다.

편의점은 1216명에서 1299명으로 6.83%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은 802명에서 791명으로 1.37% 감소해 대비를 이뤘다.

한편 100대 생활업종은 음식·숙박·서비스·소매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을 따로 분류한 것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대구은행 "농촌 돕고 우정 다지고"

순천시 달빛동맹농촌 봉사활동 2015년 이후 여섯 번째 '동행' 봉사 후 순천정원박람회 방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8일 순천에서 대구은행과 함께 '달빛동맹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달빛동맹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병우 대구은행

장을 비롯한 임직원 총 70여명이 참여해 바쁜 농번기철, 매일 농장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의 달빛동맹 농촌 봉사활동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두 은행은 2015년부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농촌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서 보성군과 담양, 경북 상주와 경산, 구미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한 바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의 달빛동맹 농촌 봉사활동이 호남과 영남 금융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지역간 금융서비스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해 상생 발전에 나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후원 은행인 광주은행은 대구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 후 문화체험을 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방문해 '광주은행정원' 등을 함께 관람하고, 두 은행의 화합과 달빛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 수범해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1064회 금요조찬 포럼 운영식 광주지방국세청장 강의

운영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이 주최하는 금요조찬 포럼에서 강의를 펼쳤다.

광주경총은 지난 19일 오후 5시 광주호텔에서 운영식 청장을 초청,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행정 소개'를 주제로 1604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운영식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질세 방법과 국제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운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중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산세가 면제

된다"며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 세액공제 범위도 국제청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 청장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하는 자녀에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 청장은 "국제청은 세부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며 국제청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국제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전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산업진흥회-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MOU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 17일 광주 AI 사업단 대회의실에서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융합산업과 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세부 내용으로 ▲신규 사업 기획 ▲과제 공동 수행 ▲광융합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술 교류 촉진 위한 네트워크 구축 ▲AI 재난안전 통합 시스템 연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융합 산업과 AI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광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AI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연

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광주는 광산업 기반 도시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융합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기술 융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광융합산업의 성장과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번 협약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협력을 통해 산업 혁신의 핵심 엔진으로서의 광융합산업 육

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68회)

| 당첨번호 | | | | | 2등 보너스숫자 | |
|------|--------------|---------------|----|----|-------------|---|
| 4 | 7 | 19 | 26 | 33 | 35 | 3 |
| 등위 | | 당첨금(원) | |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1,363,929,514 | | | 19 | |
| 2 |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 49,644,944 | | | 87 | |
| 3 | 5개 숫자일치 | 1,386,998 | | | 3,114 |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 | 150,789 |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 | 2,480,427 | |

한전KPS 비상 경영체제 돌입

경영진 급여 인상분 반납 등 2026년까지 3천억 규모 재정 건전화

한전KPS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3000억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해 조직을 줄이고 정원도 87명을 감축했으며 올해는 경영진을 비롯한 1, 2직급 간부의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조직·인력 효율화, 비용 절감,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3122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에만 608억원의 재무 개선 실적을 올렸다.

한전KPS는 또 세계적 수준의 유지보수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원전 수출 추진실과 테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전 신규 수주를 추진하는 체코와 폴란드 현지 원전 정비 협력업체와 현장 정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노형 원전 보유국인 10개국을 전방 국가로 선정해 다양한 영업전략을 펼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협 광주전남본부-광주문화신협 '동반성장' 협약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7-18일(목) 광주문화신협에서 '제 5기 신협 동반성장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전남지역 26개 동반조합, 29개 성장조합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제도는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동반신협이 발전의지를 가진 성장조합과의 다양한 교류와 경영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신협간 상생·상호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제도이다.

올해 5기째를 맞는 신협 동반성장제도는 신협간 협동으로 상호발전의 기틀 마련을 마련하고, 성장조합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전남 동반성장조합제도는 동반조합 26개, 성장조합 29개 조합이 참여 중이다.

이번 제 5기 동반성장조합제에는 성장조합의 선정기준을 강화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조합의 성장을 돕고 실질적인 경영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동반성장제도는 광주전남지역 신협이 추구하고 있는 상생문화정착을 기반으로 신협만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제도"라며 "신협이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차별성과 신협 간 협력속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